



2026 JB금융 Global Investor Day

질의 응답 요약

May 21, 2026



 **JB Financial Group**

본 자료는 'JB금융 Global Investor Day' (2026.05.21. 실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발언자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약한 자료로서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lobal Investor Day 주요 질의 내용

○ 참석자 질문 요약

구 분	내 용	Page
애널리스트 A	· 연간 순이익 가이드런스 달성 가능성 및 분기별 실적 전망	p.2
국내투자자 B	· 최근 주가 조정 흐름에 따른 주주환원 계획 변화 가능성 (자사주 매입 비중 확대 및 주주환원 속도 상향 가능 여부)	p.2
애널리스트 C	· JB우리캐피탈 조달비용 상승 영향 및 NIM 대응 전략	p.3
애널리스트 D	· 외국인 대출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 · 외국인 대출 리스크 관리 경쟁력	p.3
애널리스트 E	· 최근 NIM 경쟁력 약화 배경 및 향후 개선 방향	p.5
애널리스트 F	· 비은행권 머니무브 관련 수신 전략 및 대응 방향	p.5
애널리스트 G	· 외국인 대출 고객 재이용률 및 송금 연계성 · 자사주 매입 집행 전략 및 공백기 운영 계획	p.6
애널리스트 H	· 중장기 ROE 개선 전략	p.7
해외투자자 I	· 향후 주주환원정책 단순화 가능성 ·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 사이의 우선순위	p.7
애널리스트 G	· 원화 약세 환경에서 외국인 고객의 송금 수요 둔화 가능성	p.8
애널리스트 E	· 증권 자회사 부재에 대응한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전략	p.8
애널리스트 H	· 은행권 공공재 역할 강화 기조에 대한 JB금융의 대응 방향	p.9
해외투자자 I	· 인터넷 은행과의 공동대출 사업 구조 및 향후 방향성	p.9

Opening & 환영인사

○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회장

안녕하십니까. JB금융그룹 CEO 김기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그룹의 경영 현안과 전략을 설명드리고, 향후 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가 투자자 여러분과 경영진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에 앞서 공시한 IR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평소 JB금융그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영진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등 자유발언

Q) 애널리스트 A

- ✓ 1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10%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간 순이익 가이드스 7,500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 이후 분기당 약 2천억 원 수준의 이익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분기별 실적 흐름 및 전략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회사는 기존에 제시한 연간 순이익 가이드스 7,500억 원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 흐름은 당초 예상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분기 중 은행 부문에서 진행한 조직개편 및 그에 따른 경영방향 전환 효과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B금융은 전통적으로 1분기와 4분기의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2~3분기 실적 비중이 높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해당 계획 흐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실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연간 가이드스 7,500억 원을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국내투자자 B

- ✓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조정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환원 계획 내에서 자사주 매입 비중 확대 및 배당 비중 감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총 주주환원율 50% 달성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져갈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JB금융은 기존에 약속한 총주주환원율 50%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해 배당 정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약 32.5% 수준의 배당성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부분은 자사주 매입 시점을 일부 앞당기는 정도이며, 현재까지 기존에 발표한 주주환원 프레임워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Q) 애널리스트 C

- ✓ 최근 시장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JB우리캐피탈의 조달 구조상 회사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조달 비용 상승이 그룹 NIM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향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회사는 시장 조달금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달금리 상승분을 운용금리에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차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조달금리 상승이 구조적인 NIM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JB우리캐피탈은 과도한 금리 경쟁보다는 조달원가를 반영한 적정 운용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NIM 기반 이자이익 역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 상승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애널리스트 D

- ✓ 최근 인터넷은행 및 타 금융회사들의 외국인 금융시장 진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압박 가능성과 함께, JB금융이 외국인 대출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경쟁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최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외국인 금융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현재 JB금융이 집중하고 있는 외국인 대출 시장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B금융은 현재 E9-E7 비자 기반 외국인 근로자 신용대출 시장에서 약 7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대면 플랫폼 'Bravo Korea'와 전국 단위 오프라인 영업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사 약 198명, 외국인 전용 콜센터 및 10개국 언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축적된 외국인 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이는 신규 진입자들이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현재 E9-E7 중심 시장은 일정 수준 성장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F비자 장기체류자 및 우량 유학생 시장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F비자 고객군은 장기 체류 특성상 대출 듀레이션이 길고 잔액 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신용평가모형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 ✓ 과거 일부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금융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회사는 해당 시장을 단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과 관련하여, 인터넷은행은 대면 조직을 보유하기 어려운 반면 저희는 대면 영업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입국 이전 단계부터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대면 채널과 제휴 네트워크가 중요해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관련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경쟁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할지, 그리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A) JB금융지주 CRO 이승국

- ✓ 외국인 신용대출은 내국인 대비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데이터 내에서 핵심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B금융은 약 10년간 외국인 대출 신용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비자 타입과 국적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비자 기반 외국인 특화 모형은 이미 운영 중이며, F비자 대상 모형 역시 개발 완료 후 적용을 준비 중입니다. 신규 경쟁자들은 대부분 외부 CB사의 일반 외국인 등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면, JB금융은 자체 리스크 팩터를 활용한 운영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A) JB금융지주 COO 박종춘

- ✓ JB금융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신용정보기관 및 중앙은행 산하 기관들과 제휴를 통해 외국인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API 기반 신용정보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약 10개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신용정보 네트워크는 후발 금융 회사들이 단기간 내 구축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상품 라인업 역시 신용대출뿐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비상금대출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고객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외국인 대상 추심은 국내 고객 대상 추심과는 성격이 달라 기존 추심 경험이나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부 추심업체 역시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상담사를 중심으로 영업과 추심을 수행할 수 있는 대면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역량은 외국인 금융 시장의 중요한 진입장벽이자 경쟁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 애널리스트 E

- ✓ JB금융은 과거 금리 상승기·하락기 모두 업종 평균 대비 우수한 NIM 관리 능력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경쟁사 대비 우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최근 NIM 경쟁력 약화는 주로 은행 부문, 특히 광주은행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수년간 지역 영업환경 변화, 경쟁 심화 및 금리 민감도가 낮은 상품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년 전부터 포트폴리오 조정 및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2분기를 기점으로 NIM이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이미 1분기부터 NIM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이며, 그룹 전체적으로도 올해 은행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애널리스트 F

- ✓ 최근 비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JB금융의 수신 전략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현재 시장에서 비은행권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수신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구조적인 이상 징후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B금융은 상대적으로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 시중은행 대비 영향이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파킹형 예금 상품 비중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조달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시험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신 구조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JB금융지주 CFO 송종근

- ✓ 2025년말 대비 2026년 4월 월중 평잔 기준으로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모두 총수신과 핵심예금 규모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만 핵심예금 비중은 조금 감소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신규 금리 상승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파킹예금 확대 등 조달구조 개선 전략을 통해 수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애널리스트 G

- ✓ 외국인 대출 사업의 실제 고객 규모, 재이용률과 평균 대출금액, 송금과의 연계성 및 환율 영향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또한 최근 자사주 매입 집행 패턴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 전략 유지 여부 및 향후 자사주 매입 공백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FO 송종근

- ✓ 자사주 매입 전략 자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꾸준히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기준일 이전에는 매입을 다소 제한하고, 기준일 이후 매입을 집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매입이 집중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신탁 만기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6월 중순 전후까지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 JB금융지주 COO 박종춘

- ✓ E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대출 듀레이션은 약 14개월 수준이며, 비자 연장 또는 재입국 과정에서 재대출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중 실제 금융 접근 가능한 소득계층은 약 13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만 명 수준이 실제 대출 고객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고객 평균 대출금액은 약 1,400만원 수준으로 대출금의 약 40% 수준이 본국 송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송금 데이터는 향후 추가 금융서비스 및 신용평가 고도화 측면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Bravo Korea' 앱 내 간편송금 기능도 출시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와 송금 데이터를 연계한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외국인 대출은 원화 기준으로 실행 및 상환되기 때문에 회사 관점에서 환율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핵심 고객군인 E9 단순 근로자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 특성상 재가입률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E7 전문직 비자 고객군은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대출 및 장기 고객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단순 근로자 비자(E9) 유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F비자 장기체류자 및 유학생 시장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애널리스트 H

- ✓ 최근 은행주 화두인 ROE 제고와 관련하여 JB금융의 중장기 ROE 개선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현재 저희는 NIM과 RoRWA를 기준으로 전체 상품군을 4개 그룹(Tier1~Tier4)으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IM과 RoRWA 모두 낮은 Tier4 자산은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현재 약 5조원 규모 자산을 지속적으로 감축 중입니다.
- ✓ 단순히 ROE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 증가, 자본건전성(CET1비율) 유지까지 세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지표를 RoRWA와 NIM으로 보고 자회사별 포트폴리오 관리 및 상품별 RoRWA 기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이 안정화될 경우 내년부터는 ROE 13%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는 ROE 14% 수준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해외투자자 I

- ✓ CET1비율 목표와 주주환원을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보다, 목표 CET1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을 단순히 모두 환원하는 구조가 시장 입장에서 더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 단순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또한 ROE가 COE를 상회하는 은행으로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저희는 성장과 주주환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주주환원정책 역시 매우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 기준은 CET1 비율 13% 초과 시 50% 이상의 주주환원도 가능하다는 수준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향후 CET1 비율이 13%를 초과할 경우 경쟁사 대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주주환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방향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심플한 구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애널리스트 G

- ✓ 원화 약세 환경에서 외국인 고객의 송금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OO 박종춘

- ✓ 현재까지는 환율 변화로 인해 송금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파트너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송금 규모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고객 특성상 정기적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애널리스트 E

- ✓ 증권 자회사 부재가 향후 금융그룹 경쟁력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저희는 상대적으로 소형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가진 대형 증권사를 인수할 현실적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중소형 증권사는 사업 편차가 크고 부동산PF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는 그룹 전략과 적합한 인수 대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 다만 증권사가 없다고 해서 자본시장 비즈니스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캐피탈 및 은행 IB 조직을 중심으로 메짜닌·인수금융·상장·비상장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핀테크 및 AI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사업 시너지뿐 아니라 향후 Capital Gain 확보까지 고려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증권사 인수보다 핀테크 및 AI 투자 전략이 오히려 차별화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애널리스트 H

- ✓ 최근 정부의 은행권 공공재 역할 강화 기조와 관련하여 금융업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JB금융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은행의 공공적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은행이 공공성과 주주가치 제고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별도의 부담이나 추가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 공공적 역할은 사회공헌, 정책금융 지원 등 별도 영역에서 수행하고, 기본적인 금융 비즈니스는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JB금융은 이미 중·저신용자 및 외국인 금융 등 포용금융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금융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 정책 변화 과정에서도 저희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해외투자자 I

- ✓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와의 공동대출 사업 구조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고객 접점 경쟁력과 지방은행의 자본력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인터넷은행은 고객 수요 대비 자본 여력이 제한적이고,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객 접점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대출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더 많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인터넷은행 채널을 통해 양질의 신규 고객 확보 및 상품 판매를 통한 고객 데이터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광주은행-토스뱅크, 전북은행-카카오뱅크 협업은 금융당국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사례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대 대비 수익성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은 고신용자 중심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저희는 Mid-Risk / High Return 고객군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 현재는 지속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Closing Message

○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회장

- ✓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JB금융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 대해 경영진 역시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은행 수익 기반 약화 및 캐피탈 유가증권 평가이익 의존도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올해 초 양 은행 경영진 세대교체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직개편 및 그에 따른 경영 방향 전환의 영향이 있었으며, 이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분기에는 보증부 부동산 PF 업무 특성상 계절적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고 그 영향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저조했으나, 2분기부터는 은행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JB우리캐피탈 역시 당초 계획했던 방향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JB금융의 중장기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계획입니다.